

##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25 장 1 절- 13 절

2020 년 11 월 8 일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지난 한 주간은, 미국 대선이 화요일에 있었고, 일주일 내내 개표가 진행되었고, 누가 46 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지를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조마 조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10 시 예배 시간에, 작년 10 월에 태어난, 아기 엘리리가 오랫동안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데, 세례 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 차례 연기하게 되었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다려 준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기다렸던 예식을 오늘 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 지 모릅니다.

뭘 기다리고 있냐에 따라, 마음의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을 기다리는 남녀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암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초조 불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 성만찬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 27 권 가운데, 21 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하심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남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종구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참 종구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 인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은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 그리고 어지러움을 바르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마음 셀레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서는 자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을 압니다.

2000 년이 넘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년같으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난 2 천년이 2 만년이 넘는 느낌입니다.

매 주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인데, 사실, 좀 기다림에 지친 상태입니다.

가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대로, 정말로 오시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험악해 지고,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더욱 잃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간 신문을 읽기가 무섭습니다.

금년 초 부터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23 만 5 천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11 월 중으로 미국에서 3 만명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 모든 나라에서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초 비상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인도에서도 비상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상 경제도 침체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함께 만나 예배하고 친교하는 생활을 못하니까, 힘듭니다.

또하나 보이지 않는 유행병이 우리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 정책입니다. 백인 경찰들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인종 차별이 고질적으로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고, 방황하고 있는 피난민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알메니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웃 나라들과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랜 갈등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태풍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산 불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미국 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 지면 질수록, 우리들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나? 정말 오시는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정말 올 것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재 정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2 Corinthians 5:7)

하나님께서 우리를 “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 에서 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열처녀 비유는, 마태가 전하는,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 3 개중의 하나입니다.

13 절에, “그 날과 그 때를 모르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뭘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사실 깨어 있지 않았습시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다 졸고 있었습시다. 육신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고 야단 맞지 않았습시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잠에서 깨어 있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시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야단을 맞게 되었습시다. 왜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시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시다.

기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토마스 롱 이라는 에모리 대학, 캔트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시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 빛을 비추어라” Keep your light shine! 이 이번, 청지기 캠페인 주제입시다. 계속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자는 말입시다.

마태복음 5 장, 산상 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분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시다.

주님 말씀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마태복음 5:43-44)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라” (마 5:24) 형제 자매와 사이 좋게 화해하며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누가 네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 주어라” (마 5:41) 자기에게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지만, 흔쾌히 이웃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마 7:1) 판단하지 않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 두어라” (마태 6:19, 20)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 6:24)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 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마 6:34)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황금울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마 7:12)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난 주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8,9)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 4:31-32) 라고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생활입니다.

저희 장모 장인어르신께서, 한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태능 시장 입구에 자리를 잡은 구라파 제과입니다. 장모님 말씀이, 교회 교인들이 제과점에 들어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 여기 오세요. 권사님 여기에요. 아줌마 여기 물 더 주세요. 왜 빵이 좀 말랐네요. 제과점 전체를 전세낸 것 처럼 야단 법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들어와서, 빵을 사서 나누어 먹고, 물 갖다 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또 제과점을 떠날 때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맘이 아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기는 커녕,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0 년 이 넘은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아프게도, 아직도 우리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이런 소리 들어 보았지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요. 참 큰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여야 할 때입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진솔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만이 들어갈 것이다” (마태 7:21)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언제 재림하실 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